맞벌이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하면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올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 규모는 당초 목표치 37만 2천 명보다 많은 40만 명으로 확대됐다. 학교돌봄교실 1,500여 실을 늘려 29만 명에게 서비스 공급을, 마을 돌봄은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1만 4백 명 지원을 목표로 했다.

2022년까지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합해 53만 명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돌봄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

다함께돌봄

https://dadol.or.kr/biz/biz\_intro

뉴스(운영방안)

https://blog.naver.com/freekorea0815/22176423823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302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정책 한계 …그 대안은?**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447